



〈머릿말〉

방향을 바로 잡고

학교장 이 동 욱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맴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때로는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으로 확실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의 차이나 남녀의 구별은 있을지라도 생활의 방향이 정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장의 방향을 상실한 아동 학습의 방향을 상실한 학생, 삶의 방향을 상실한 인간, 전진의 방향을 상실한 국민, 전설의 방향을 상실한 국가, 신앙의 방향을 상실한 종교인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마치 방향없이 달리는 자동차나 방향없이 떠다니는 배나 방향없이 나르는 비행기, 혹은 방향없이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어딘가 병들었든가 고장이 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방향 상실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살아야 하고 걸어야 하고 학습해야 하는 방향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이 방향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자아의 전전한 전설이라는 뚜렷한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타고난 바탕을 충분히 계발하며 자기실현의 참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비지땀 흘리는 수고를 해 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전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시민으로 전전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주어진 여가를 선용할 줄 아는 자기로 사회에서 쓰여 질 수 있는 계발된 소질의 소유자로 특히 사실의 판

단과 인생에 대한 해석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나를 건설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하고 학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고 있는 방향은 변명하는 민족, 변명하는 국가의 전설이라는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길을 걷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관이 서 있지 않은 지식인은 민족의 고질입니다.

그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쏟아진 동포와 국가의 노력이 저버려지는 안타까움은 고사하고 그릇된 사상과 빛나간 여론의 조작으로 국민들의 전진의 방향을 흐리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국가 지상이라는 편협된 애국심에 충동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국적없는 국민이 될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역사와 문화의 계승자로서 닦아 올 영광스런 조국의 전설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들지만 절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수반된 자유를 누리는 국민이 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활동에 있어서 자주 독립 자족하며 나아가서는 풍요한 국가의 전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절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게무게 여름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있으면 그 신기함과 아름다움에 취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가벼운 절음으로 처마 밑을 찾아든 자욱한 안개 속에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생활을 방향없이 떠다니는 구름이나 흐르는 안개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굳센 절음으로 나가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음칠 때 자기 완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역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자고 하는 말을 끝내면서 다음의 성경 귀절이 우리의 방향을 더 잘 보여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게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